

화순군, 삼성토탈 방문 농산물 판매 협의



화순군(군수 흥이식)은 최근 지역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해 박정호 도곡면장, 이봉훈 의회사무과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자매결연업체인 삼성토탈 주식회사를 방문해 지속적인 교류방안을 협의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kwangju.co.kr

나주시 드림스타트센터 '방학 학습 멘토링'



나주시 드림스타트센터는 방학기간을 이용해 지난 5월부터 30일까지 총 4주간 주 3회(월·수·금)에 걸쳐 초등학교 고학년 15명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학습 멘토링'을 실시하고 있다.

/나주=손영철기자 ycson@kwangju.co.kr

경희의료원, 고품 과역면 의료봉사 활동



경희의료원 한마음 무료 봉사대 이태원 교수 등 의료진 38명과 국제사회복지법인 굿피플이 최근 고품 과역면을 찾아 내과, 안과, 한방 등 8개과 무료 의료봉사 활동을 가졌다.

/고품=주각중기자 gjju@kwangju.co.kr

전남농협, 구례서 '식사랑農사랑체험학습'



농협전남본부(본부장 박종수)는 19일 구례군 토지면 오미읍수마을 대표 곽영숙에서 산동중(교장 강기호) 1학년생 18명이 참여한 가운데 '식사랑農사랑체험학습'을 진행했다. (농협전남본부 제공)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84 FAX 062-222-4938, 222-4918

화족

▲오성주(광주축산농협 북부지점장)·김은숙씨 장남 민혁(목포KBS방송국)군 흥순식(무안 도자기사업)·정행심씨 장녀 현정양=24일(토) 오전 11시 40분 수아비스 웨딩홀 1층 로즈홀.

종친회

▲(사)전주이씨 대동종 약원 광주·전남 지원 여성 이화월례회(회장 이보희)=22일(목) 오전 11시 011-605-2059.

일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광주남구중독관리센터 가족교육프로그램안내='BEAUTIFUL' 문재

없이 너와 내가 함께하는 아름다움·중독으로 고통받는 분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시간을 마련. 일시는 20일·27일, 장소는 광주남구중독관리센터(남구 미래아동병원 앞) 광주남구중독관리센터 062-413-1195, 062-412-1464(담당자 김형우)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상담·신고 전화 운영=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학대와 방임을 말한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을 필요로 합니다. 아동학대와 관련된 상담 및 신고전화 1577-1391은 24시간 운영,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아동 보호전문기관.

▲사회복지법인 수완실버빌 노인 종합복지센터=65세 이상 요양등급 판정 1~2등급 인정받은 자. 기초생활서비스·의료서비스·재활서비스, 여가, 사회, 주·야간보호. 062-959-2340.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부부갈등·가족갈등·체류·국적취득 등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로 인해 긴급보호가 필요할 때 자국으로 상담 및 보호시설 연계가 가능한 기관. 경찰, 병원 보호시설 및 유관기관들이 요청하면 협장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통역을 통한 긴급지원 서비스(광주센터 상담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062-366-1366, 367-1577, 368-1577.

해병대전우회 전남연합회 박정현 회장

“봉사정신으로 무장 하겠습니다”

“해병대전우회 전남연합회가 화합할 수 있도록 소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습니까.”

최근 해병대전우회 전남연합회 3대 회장으로 박정현(61)회장이 선출됐다. 임기는 3년.

신임 박 회장은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해병대전우회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각 지역 전우회에 대의원제도를 만들어 정기회의를 열고 운영내역을 공개해 투명성을 재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해병대전우회에 대한 여론을 정취해 참여율과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언급했다.

박 회장은 최근 태안에서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가 발생해 해병대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실추된 사실을 우려했다. 또한 일부 회원들이 시대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아 지탄받고 있는 점을 빠르게 받아들이며 앞으로는 달라진 해병의 모습으로 솔선수범하겠다고 다짐했다.

“해병대 하면 자부심이 가장 큰 자산인데 몇몇 사건들로 인해 저희에 대한 오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



해병대전우회 전남연합회 박정현 회장이 지난 16일 취임식에서 포부를 밝히고 있다.

회장이 된 민준 그동안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 해병이 해온 역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970년 10월 24일 해병대 231기로 진해에서 훈련을 받았던 박 회장은 해병에 대한 자긍심이 누구보다 남달랐다. 보병에

으로 근무하며 1971년 월남전까지 참전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만큼 얻은 것도 많았다. 특히 타군과 달리 본인이 지원해서 입대하는 해병인 만큼 월남에서 도 혁혁한 공을 세웠다.

해병대에 대한 남다른 자부심은 그의 자녀들에게도 이어졌다. 두 아들이 해병 804기, 898기로 해병대 가족이 됐다. 박 회장은 두 아들이 젊은 기간 해병대로 복무하며 크게 성숙해진 점을 자랑스러워하며 주변 지인들에게 추천하고 있다.

“해병으로 복무하는 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무척 힘든 일인지지만 제대 후 겪게 될 사회생활에 비하면 견딜만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판단력을 키우고 강인한 체력을 키울 수 있는 것만으로도 해병대 생활은 짜을 수 있고 도전해 볼만하다고 생각 합니다.”

박 회장은 일본으로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해병대 전우회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며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말처럼 해병대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전남연합회가 해병대원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위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목포상의 김호남 회장 '지역 인재육성' 10억 출연

우남문화재단 설립

목포상공회의소 김호남 회장이 (재)우남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창작사업에 나선다.

목포상공회의소는 20일 김 회장이 10억 원을 출연해 창작재단을 설립하고 신안 바다생명문화관을 통해 문화활동과 인재양성에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근화건설 CEO로 기업인이자 수필가인 김 회장은 오는 22일 목포대학교에서 경영학박사 학위도 받는다.



김 회장의 논문 '전남 지역의 제조업 효율성과 수출경쟁력'은 전남지역 경제의 변화 추이와 제조업 효율성, 수출경쟁력을 과학화해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김 회장은 그동안 '아름다운 유산', '바다를 품다', '삶의 물레는 돌고 도는데', '새들은 함부로 집을 짓지 않는다' 등 네편의 수

필집을 냈다.

목포대학교는 학부 수여식 날 김 회장에게 박사학위와 함께 대학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공로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kwangju.co.kr

편집기자 20년 그 노하우 담다

동아일보 김용길 차장 책 출간

한국편집기자협회(회장 박문홍)의 저술지원 기금 1호 책이 출간됐다. ‘편집의 힘’(행성 : B잎새)을 쓴 동아일보 김용길 차장이 그 주인공.

‘편집의 힘’은 일상 생활 속 편집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세심하게 들여다 보고 있다. 마트의 진열장부터 건물의 간판 등을 관찰하며 편집기자로 20여년을 살아온 노하우를 담았다.

김용길 차장은 “넘치는 것은 잘라주고 부족한 것은 채워주는 것이 바로 편집”이라며 “편집의 힘”이란 책이 편집기자와 대중의 정서적 소통을 이루어 낼 수 있는 가교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의사 위기의 남성 살린 고교생들

광양 계곡서 물놀이 중 심폐소생술·인공호흡으로 구명

고교생들이 평소 익혀온 응급처치법으로 물에 빠진 40대 남성을 구했다.

21일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6시 40분께 광양시 육룡면 계곡에서 박모(42)씨가 수심 2m의 물에 빠졌다.

박씨는 당시 물에 취해 의식을 잃은 채로 물에 떠 있었다.

인근에서 물놀이를 하던 소모(19·순천공고 3년)군과 친구 선모(19·청암고 3년)양이 사고를 목격했다.

소모이 먼저 물로 뛰어들어 박씨를 물 밖

으로 끌어왔고 간호학을 배우고 있는 선양이 막바이 뛰어 들어 박씨에게 10여분간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을 실시했다.

박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김영창 광양경찰서장은 “신속한 응급처치와 구조가 귀한 생명을 구했다”며 “각박한 세상에 헌생할 줄 아는 진정한 용기를 가졌다”고 격려했다.

경찰은 이를 학생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kwangju.co.kr

계층 여성 교육생=여성장애인 및 취약계층 여성(선착순 15명) 대상, 4월~9월(주1회·오후 2시·교육비 무료), 장소는 전남대동창회관, (사)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 광주광역시협회 062-251-7482, 019-622-1721.

▲2013 여성기족부 공동협력 사업 ‘냅킨공예’=여성장애인 및 취약계층 여성(10~15명 선착순 접수) 교육기간은 5월~11월 매주 월요일 오후 2시~4시(주1회·무료) 장소는 전남대 동창회관 206호, (사)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 광주광역시협회 062-251-7482, 019-622-1721.

▲2013 여성단체·기관 협력사업 ‘양말인형공예’=여성장애인 및 취약계층 여성(10~15명 선착순 접수) 교육기간은 5월~9월 매주 금요일 오후 2시~4시(주1회·무료) 장소는 전남대 동창회관 206호, (사)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 광주광역시협회 062-251-7482, 019-622-1721.

▲‘사랑의 열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 장애여성 및 취약

태권도-스키 '스포츠 스타 커플' 탄생

김연지-토비 도슨 다음달 14일 결혼



김연지
토비 도슨

또 한 쌍의 스포츠스타 커플이 탄생했다. ‘태권도 여제’ 김연지(32)와 스키대표팀 코치 토비 도슨(34·본명 김봉석)이 내달 14일 서울 이태원 블루스퀘어에서 박종길 문화체육관에서 열린 결혼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김연지는 2001년과 2003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2연패를 달성하고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는 등 한국 태권도의 간판으로 활약한 주인공이다.

한국계 미국 입양아인 토비 도슨은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에서 프리스타일 스キー 남자 모글 동메달을 목에 걸은 스타다.

두 사람의 인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년 전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우승 경기 과정에서였다.

선수 생활을 끝내고 대체육회에 입사한 김연지는 유치위원회에서 활동했고, 도슨 역시 남아공 더반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 참석해 평창이 2018년 개최되는 동계올림픽 우승 경기 과정에서였다.

이후 김연지는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에 파견됐고, 토비 도슨은 스キー 국가대표팀 코치로 선임돼 함께 5년 뒤 평창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허영만 신작 '허허 동의보감' 다음달 출간



인터넷 서점 알라딘은 오는 9월 출간되는 여수 출신 만화가 허영만의 신작 ‘허허 동의보감’의 스페셜 북핀드에 투자할 독자를 모집한다.

‘스페셜 북핀드’는 출간 예정인 도서 가운데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도서에 대해 독자들이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알라딘 측은 “큰 출판사에 비해 마케팅 비용이 넉넉지 못한 작은 출판사 도서 위주로 진행된다”면서 “투자 후 해당 도서를 구매한 고객은 최대 30%까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최소 1000만 원을 목표로 지난 19일 펀딩을 시작한 ‘허허 동의보감’은 불과 4일 만에 700만 원이 넘는 펀드를 조성했다.

올해로 출간 400주년을 맞은 허준의 ‘동의보감’은 출간 예정인 도서 가운데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도서에 대해 독자들이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이다.